

“등 따시니 좋을시구! 한옥 민박 체험”

한국관광공사는 “등 따시니 좋을시구! 한옥 민박 체험”이라는 테마 하에 11월의 가을 만한 곳으로 ‘절절 끓는 구들방에 등 지지는 이맛! 영암 월인당(전남 영암)’, ‘신라 천년 역사의 향기가 온돌방마다 그득(경북 경주)’,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한옥 강릉 선교장(강원 강릉)’, ‘강, 호수에 기댄 한옥에서 맞는 청량한 아침, 팍카티지(경기 가평)’, ‘가을 정취 흐르는 옛 담장길을 걷다(경남 거창)’, ‘부용에 기대어 하회를 바라보는 명당 한옥에 머물다 안동 옥연정사(경북 안동)’, ‘근대 명품 한옥인 전주 학인당에 머물다(전북 전주)’ 등 7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만추의 길목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며, 길을 나서보면 어떨런지...



황금빛 들판에 자리한 거창 황산마을

절절 끓는 구들방에 등 지지는 이맛! 영암 월인당(月印堂)

영암 땅 너른 들녘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언덕, 월출산과 은적산 사이에 자리 잡은 월인당은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구들방의 추억’을 되살려 주는 소박한 한옥 민박집이다. 내력 있는 종택도, 유서 깊은 고택도 아니건만 주말마다 예약이 밀려드는 까닭은 황토 구들방에 등 지지는 맛이 각별해서다. 규모는 단출하다. 방 세 칸에 두 칸짜리 대청, 누마루와 뒷마루가 전부다. 방 세 칸은 모두 구들을 넣고 황토를 깐 위에 한지장판을 바른 ‘장작 때’는 방이다. 바닥은 뜨끈하고 위는 서늘하니 자연스럽게 공기가 순환하는 구조다. 삼면이 특 트여 햇살과 바람과 달빛이 드나드는 누마루는 차 한 잔의 여유 혹은 술 한 잔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정자 역할을 한다. 월출산 위로 보름달이 뜨는 밤 누마루에 나와앉으면 ‘달빛이 도장처럼 찍히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안마루가 달빛으로 환하다.

위치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문의 :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241



신라 천년 역사의 향기가 온돌방마다 그득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가면 월암재, 서악서원, 도봉사당, 종오정, 독락당 등에서 고택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 고택들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전에는 정자, 서원, 재실 등으로 사용됐다. 은둔생활에 있어있던 이 문화유산들은 목은 때와 세월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이제 고택숙박체험지로 거듭났다. 대청마루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면서 경주 남산 줄기를 바라보는 조망의 즐거움이 그곳에 있다. 늦은 밤, 달빛 교묘한 마당을 거닐다 보면 신라시대 왕들의 숙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다. 경주 고택들 주변으로는 나정, 삼릉, 무열왕릉, 서악고분군, 옥산서원 등 문화유산이 즐비해서 하룻밤 머물며 역사의 향기 가득한 마당을 산책하기가 더없이 편하다. 뜨끈뜨끈한 온돌방은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기에 좋다.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탑동 749-2(월암재) 등
문의 :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054)779-6083, 신라문화원 (054)774-1950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한옥 강릉 선교장

강릉 선교장은 강원도에서만 아니라 이 땅의 전통 한옥 중에서도 원형이 가장 잘 유지된 집이다. 안채, 동별당, 서별당, 열화당, 활재정 등 100여 칸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살림집 면모 그대로다. 집 뒤로 수백 년은 족히 뒀음직한 노송들이 우거진 숲을 이루고, 긴 행랑 사이로 날아갈 듯 사뭇히 치켜 올린 고옥의 추녀가 그 역사를 대변해 준다. 집 구석구석 예스러움이 묻어나고, 특별히 치장하지 않아도 집안 내력에서 풍겨나는 향기만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선교장은 한옥의 매력을 살려 옛 것을 유지한 채 실내에 부엌,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춰 내 집처럼 편안하게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운정동 431
문의 : 강릉시청 관광과 (033)640-5125

강, 호수에 기댄 한옥에서 맞는 청량한 아침, 팍카티지

강과 호수가 어우러진 한옥에서의 하룻밤은 한결 운치 있다. 가을, 아침녘 눈을 뜨면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오래된 기와 위에도 청량한 기운이 내려앉는다.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한옥 숙소인 팍카티지는 흥천강과 정평호의 경계가 되는 곳에 자리 잡았다. 이곳 한옥은 잠실 풍납토성에 있던 200여년 된 가옥을 1980년대에 옮겨와 복원한 것이다. 한옥까지는 육로 외에 청평호 유람선을 이용해 마당 앞 선착장에 닿을 수 있다. 한옥 2채는 성춘제와 천리제로 나뉘며 10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성춘제가 좀더 완전한 한옥의 자태를 뽐내다면 천리제는 벽난로 등 현대식 시설을 갖춰

편의를 더했다. 한옥의 따뜻한 온기는 청평 오일장, 가평읍내 테마 정원인 이화원 등을 거치며 더욱 무르익는다. 호명 호수와 황상의 드라이브 길 역시 만추의 풍경이 인상적이다.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문의 : 가평군청 문화관광과 (031)580-2065



가을 정취 흐르는 옛 담장길을 걷다

거창 황산마을은 거창 신씨 집성촌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건립된 한옥 50여 채가 밀집해 있다. 황산마을에서는 민박이 가능한데 현재 10여가구가 민박숙님을 받고 있다. 아직도 장작불을 들이는 방을 가진 집도 있다. 한옥도 한옥이지만 마을 사이로 구불구불 흐르는 흙담길도 예쁘다. 담장 위에 얹어놓은 여러 겹의 기와가 독특하고 이채롭다. 이끼가 내려앉은 기와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만 같다. 황산마을의 흙담은 물빠짐을 위해 아랫단에는 제법 커다란 자연석을 쌓았고, 윗단에는 황토와 돌을 섞어 토석담을 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등 록문화재 259호로 지정됐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황산2구 마을은 벽화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다. 벽화를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다보면 깊어가는 가을을 실감할 수 있다. 황산마을 바로 앞은 거창 제일의 명소인 수승대. 요수정이라는 정자에 앉아 바라보는 가을정취가 일품이다. 거창군과 함양군 사이에 자리

한 금원산 자연휴양림에서 즐기는 가을 계곡도 운치 있다.
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일원
문의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055)940-3422

부용에 기대어 하회를 바라보는 명당 한옥에 머물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부용대 자락에 은거하며 낙동강과 하회마을을 앞으로 두르고 있는 옥연정사(玉淵精舍)는 서예 유성룡 선생이 10년에 걸쳐 손수 지은 뒤 거처한 4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택이다. 소박하면서도 절제미가 어우러진 건물은 대문간채, 안채, 별당채, 사랑채 등 4동의 독립 별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 머물면 서예 선생이 머물렀던 흔적과 징비록을 저술하며 학문에 힘쓰던 시간을 동행하는 고즈넉한 기분에 젖어볼 수 있다. 바로 뒤로 오르면 부용대, 강을 건너면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전통한지공예 등도 체험해, 안동의 전통 문화와 자연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여행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문의 : 옥연정사 (054)857-7005, (017)526-0410

근대 명품 한옥인 전주 학인당에 머물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자리한 전주한옥마을은 도심형 슬로시티이다. 전주한옥마을의 대표가옥인 학인당은 1908년에 지은 집이다. 인제(忍齋) 백낙중이 암록강, 오대산 등지에서 나무를 가져오고 4000명이 넘는 도편수와 목공 등 인부를 불러 2년 6개월간 지었다. 이 집의 본체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실내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천장을 2층 높이로 만들고, 건물 안쪽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도록 설계한 것. 덕분에 전주최초의 공연장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백범 김구 선생과 해공 신익희 선생도 머물렀었다 한다. 마을 중심에 자리한 동락원은 전주기전대와 부설기관으로 숙박과 다양한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근에 자리한 전주향교, 완판본문화관, 남부시장, 루이엘모자컬처센터 등과 연계하면 가을에 떠나면 좋은 여행코스가 완성된다.

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문의 : 전주시청 한스타일관광과 (063)281-5044

축 · 건설교통신문창간 23주년

건설교통신문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일동은
이땅의 교통문화 정립 및 화물운송사업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9 지부장 이상필
- 8 지부장 박영우
- 7 지부장 조용섭
- 6 지부장 박하상
- 5 지부장 김수진
- 3 지부장 정종기
- 2 지부장 이재학
- 1 지부장 양택승
- 전무이사 노승선
- 부이사장 배홍채
- 부이사장 조영배
- 이사장 민영일



이사장 민영일

서울특별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26-5(월드메르디앙 벤처 센터 2, 210호)
대표 : 2025-8440, 팩스 : 2025-8449